

# 대부도 흘끗 마을 돌살



이 세 나  
안산어촌민속전시관 학예연구사

**대**부도 흘끗 마을의 행정명칭은 안산시 단원구 남4리이다. '흘끗'이라는 낯선 명칭을 가진 이 마을에는 살짝 숨겨놓은 어장 다섯 군데가 있다. 썰물 때 해안선을 따라 어부의 큰 걸음으로 770여 발자국을 걸어 들어가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와 그물을 마주하게 된다. 무질서 해 보이는 돌무더기를 천천히 바라보면 양쪽 끝에 서부터 돌무지가 활모양을 그리며 그물 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민들은 왼쪽 활을 '동활', 오른쪽 활을 '서활', 가운데 그물 부분은 '임통'이라 부른다. 더 열심히 살펴보면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다섯 개의 돌무지는 흘끗 마을 어민이 아버와 그 아버 때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온 장소 '돌살'이다.

## 1. 돌살이란?

돌살은 밀물과 썰물의 물때를 이용해 고기를 잡던 전통어로 방법 중 하나이다. 정연학은 그의 석사논문에서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고기를 가두기 위한 담' 이 돌살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흘끗마을의 돌살 주인 문○순(75세)씨는 '돌로 쌓은 성이 돌살이다' 라고 말한다.

사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에서는 돌살의 흔적을 제법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돌살은 해안에 돌을 쌓아서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고기를 임통에 가두고 갇힌 고기를 퍼내서 내다파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역에 따라 명칭과 형태 운영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돌살이라는 명칭은 경기 도서 지방인 대부도·연평도·어도 등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충청남도의 대천·서천 지역과 전라도 부안·함평·안좌도·돌산도 등에서는 '독살'이라는 이름으로 남해도와 거제도에서는 '돌밭', 제주도에서는 '원담' 또는 '갯담' 이라 불린다.

흘끗의 돌살은 어획량의 감소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의 변화를 보이며 이어져 오고 있다. 흘끗

의 돌살은 총 다섯 군데에 있다. 다섯 곳 중 세 곳은 그 형태가 거의 완전하고 한 곳은 상당히 유실되어 있다. 각각의 돌살은 소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돌살에는 거의 호주의 이름이 붙여진다. 보통 ○○씨네 돌살이라고 지칭하는데, 가장 큰 돌살만 '애밋(어미)돌살'이라고도 불린다. 제1돌살은 이○영씨네 돌살, 제2돌살은 홍○위씨네 돌살, 제3돌살은 이철○씨네 돌살, 제4돌살은 신○용씨네 돌살, 제5돌살은 이○복씨네 돌살이라고 부른다. 제1돌살의 현재 주인은 이○씨의 사촌인 이남○씨이고, 홍○위씨네 돌살도 다른 이에게 넘겨주었다. 신○용씨네 돌살도 그 아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 2. 돌살 설치장소와 형태

돌살은 어획량이 많고 설치하기 용이한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흠곶의 돌살 또한 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안 가장자리 메추리섬 자락에 있다. 메추리섬 바위 자락과 이어져 신○용씨네 돌살(제4돌살)이 위치하고 그 동쪽으로 이철○씨네 돌살(제3돌살), 홍○위씨네 돌살(제2돌살), 이○영씨네 돌살(제1돌살)이 순서대로 놓여 있다. 해안의 중앙으로 갈수록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확연하며 물의 속도가 빨라 급물살을 이룬다. 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이○영씨네 돌살'은 흠곶 돌살 중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애밋돌살"이라 불린다.

흠곶리 돌살은 양쪽 끝에서부터 돌무지가 활모양을 그리며 그물 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민들은 왼쪽 활모양은 '동활', 오른쪽 활모양은 '서활', 가운데 트인 곳을 '임통'이라 부른다. 임통 부분에는 돌을 쌓지 않고 그물을 두어 썰물에 고기를 가두었다. 따라서 흠곶리의 돌살은 앞이 트인 반달형이라고도 한다. 대부도 지역 외의 돌살은 앞이 막혀 있다. 남해나 서천에서는 임통 부분이 젓꼭지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돌을 쌓았다. 경기도 해안 지방에서는 임통을 '내상'이라고도 했고, 경남 해안 지방에서는 '옴통'이라고도 불렀다. 동활과 서활도 서천 지역에서는 '무집'과 '활개'라 불러 세부명칭에서도 지역별 차이점이 드러난다.

흠곶의 돌살은 1990년대 중반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바다 쪽의 돌은 높게 동활과 서활 부분은 낮게 쌓았고, 파도가 강한 임통 쪽은 90×100 정도의 용오름돌을 뒀고 동활과 서활 쪽으로 작은 돌을 쌓았다고 한다. 따라서 흠곶의 돌살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으며



흠곶마을 '애밋(어미)돌살' 이○영네 돌살



흠곶마을 '애밋(어미)돌살' 이○영네 돌살



홍○위씨네 돌살(제2돌살)



이철○씨네 돌살(제3돌살)



신○용씨 돌살(제4돌살)

1.4m 높이를 지니고 있었다. 현재 흘곳의 돌살은 윗부분의 훼손이 심하고, 임통 부분에 연안 안강망이 매여 있어 모시나 나일론 사 그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임통 부분에 매여진 이각망

### 3. 흘곳의 살매는 작업

#### 살매러 간다

돌살은 매일 물때에 맞춰 돌봐줘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흘곳에서는 돌살을 손보러 가는 길을 '살보러 간다' 또는 '살매러 간다' 라고 말한다. 물때는 달과 태양에 의해 아침·저녁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기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돌살의 주인인 '망주'와 일하는 사람인 '동사' 들은 물이 조금 들어오는 조금에는 그물을 떼어서 집에 두었다가, 조수와 고기가 몰려드는 때인 '참사리'에는 그물을 다시 맨다. 그물을 떼었다가 매는 작업을 '살매러 간다' 라고 이르다가 '살매러 간다' 가 흘곳 돌살 작업의 대표어가 되었다.

#### 참봉고사

사리에 그물을 다시 맬 때 '참봉고사' 를 지냈다. 참봉은 소위 말하는 도깨비로 독살에 고기를 몰아주는 신이라는 믿음이 있다. 흘곳에서는 돌살의 그물을 매는 곳인 임통 부분에서 제물을 차리고 참봉고사를 지냈다. 바다에 정갈한 짚을 깔고 메밀 범벅과 송어 등의 고기 말린 것, 막걸리, 머리가진 육고기를 올렸다. 고사를 지내고 난 후 음복을 하고, 술과 제물을 동할과 서할에 뿌리는 제물드림을 한다. 제물드림을 하며 "물아래 참봉, 물 위에 참봉, 서할, 동할 용왕님께 술 한 잔 드립니다." 라고 외운다.

#### 날질새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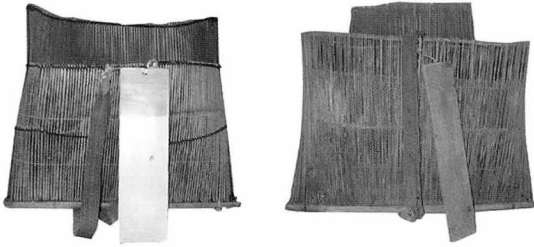
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돌살의 고기잡이가 시작된다. 흘곳의 돌살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지형과 갯가의 혼한 돌을 사용했지만 어종이 풍부하고 어획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있고 후덥지근함을 느끼는 날을 흘곳 어른들은 '질새가 좋다' 라고 한다. 어른들이 '날 질새 잘 한다' 라고 표현하는 날은 틀림없이 고기가 많이 잡혔다. 반면 날이 맑고 바람이 없고 조용한 날은 고기가 돌살에 드는 양이 적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의 지리 생태 환경에 대한 어민들의 이해는 깊었고, 오랜 기간 동안 축척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기를 거두는 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이다. 여름에는 냉장시설이 없어서 잡아둔 고기가 상하는 바람에 조업을 할 수 없고, 겨울철 성애가 끼는 날에는 살을 맬 수 없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흘곳 돌살에서는 꽃게, 돌게, 선대, 병어, 밴댕이, 전어, 가오리, 송어, 농어, 광어, 망둥어, 갈치 등 지금은 잡히지 않는 어종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어획량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 4. 살매는 도구

썰물이 되어도 일정한 물은 임통 부분에 고여 있다. 이렇게 임통 부분에 모인 고기는 테·반두·족지 등의 뜰채를 이용해 건져 올려진다. 돌살의 주인인 망주와 일꾼인 동사들은 그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를 부게라는 지게에 지거나, 소의 잔등에 질마를 얹고 '거지게'를 두어 싣고 다니곤 했다. 질마에는 가마니 형으로 짠 '원구'라는 망태기를 두고 거기에 물고기를 넣었다.

#### 부게



부게 높이 85cm 너비 95.5cm

부게는 해안에서 거둔 어획물을 나르는 데 쓰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아랫부분이 모아지고 윗부분이 벌어진 광주리 모양으로 고르게 준비된 뗏살을 소나무 뿌리와 나일론 사잇줄로 둥글게 결어 만들었다. 또 등을 대는 부분의 뗏살은 다른 부분보다 길게(8cm)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받침대'라고 부른다. 받침대를 제작한 이유는 고기를 돌살에서 부게로 퍼담을 때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윗부분 뗏살에 2개의 초록색 뿔뿔이 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미끈이라고도 부른다. 과거에는 짚을 엮어 미끈을 만들었다고 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질이 바뀐 것이다. 광

주리에는 소나무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만든 등태가 매달려 있다. 부게를 등에 짚을 때 살이 배기지 않고 물에 젖지 말라고 만들어 단 것이다. 광주리의 내부에는 그물이 매여져 있어 고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부게의 바닥부분은 오목하게 쇠시리를 댄 나무를 끼워 마감했다. 이 부분은 '물받침대'라고 하는데 오동나무 또는 소나무에 흠을 파서 광주리 아랫부분에 부착했다. 광주리에 고기를 잡으면 물이 물받침대를 타고 좌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부게는 돌살에서 잡은 고기를 담아 운반할 때도 사용되었지만 그물에 걸린 고기와 조개를 잡을 때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현재까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부게는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물받침대를 따로 분리시켜 그늘진 곳에 말려 습기를 제거한 후 보관했다.



부게의 물받침대

#### 호롱

돌살은 매는 작업은 물때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밤에 작업하는 일도 많았다. 야간작업 덕분에 흠곳에서는 다양한 도깨비 관련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1940년대 이전에는 밤에 고기를 거두기 위해 햇불 또는 해로 불을 밝혔고, 1960년대 이후부터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호롱불을 이용해서 밤에 살을 맬 수 있었다.



유리등 내부의 호롱부분

## 5. 흘곶 돌살의 운영과 매매

이렇게 잡은 고기는 돌살의 주인인 망주를 중심으로 같이 일한 동사들에게 나눠진다. 살의 운영은 주인인 망주가 하지만 두 명 내지 세 명의 작업자들을 '동사'라고 하여 어획물을 나누기도 했다. 그들은 1940년~1960년 사이에는 부계에 고기를 담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고, 고기가 많이 잡힐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서 팔았는데 이들을 '등짐장수'라고도 불렀다.

보통 망주 한명에 동사 두 세 명에서 네 다섯 명이 같이 일을 진행했다. 등짐장수가 있을 당시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고기를 버리고 올 때도 있었고 돌살을 가진 집안은 부자 소리를 들었다. 당시 돌살의 매매가격은 '논 서너마지기'란 소리가 돌기도 했다. 어획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1970년대가 되면서 이○영씨는 애뎃돌살을 쌀 두가마를 지불하고 샀다. 1990년대가 되면서 일부 망주들은 돌살을 싼값에 넘기거나 이각망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 있다.

흘곶의 돌살은 현재 주인들의 윗세대들이 조성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돌살은 바람이 불면 작은 틈이 있어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꾸준한 보수가 필요하다. 흘곶의 망주들은 거의 매일 살을 보러 다니며 정성을 기울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어획량이 감소하고 동력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흘곶의 돌살은 방치되기 시작했고, 돌살의 윗부분이 무너지게 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해안에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이○복씨네 돌살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돌살은 어민들이 지형과 물때 바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기를 잡던 방법 중 하나로 선인들의 축적된 지혜의 결과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태·지리적 환경과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민속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돌살의 원형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활용하는 등 선인들의 지혜를 널리 알릴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참고자료

- 안산문화원, 대부항리지, 2002.
- 정연학, 「돌살고」,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연학, 「전통어렵 '돌살'에 대하여」, 『비교민속학』 11집, 1994.
- 주강현, 신이내린 황금그물 돌살, 2006, 들녘.